
전북 기업이 바라본 2026년 경영 · 경제전망 조사

2026. 1.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목 차 ||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기간	1
3. 조사대상	1
4. 조사방법	1
5. 집계방법	1
6. 조사내용	1
II. 종합분석	2
III. 기업이 바라본 2026년 경영·경제전망 조사	3
1. 高환율이 기업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3
2. 지역 기업이 전망하는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	5
3.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내수 및 수출 실적 목표 수준	5
4.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	7
5.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	8
6.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	9
7. 2026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9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경제 전망과 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

2. 조사기간

- 2025년 12월 1일 ~ 2025년 12월 12일

3. 조사대상

- 전북지역 5개 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 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26개 업체로부터 회수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함.

5.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인 8개 업종)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6. 조사내용

- 高환율이 기업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흐름
- 2026년 내수 및 수출실적 목표 수준
-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
- 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핵심 변수
-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
-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
- 2026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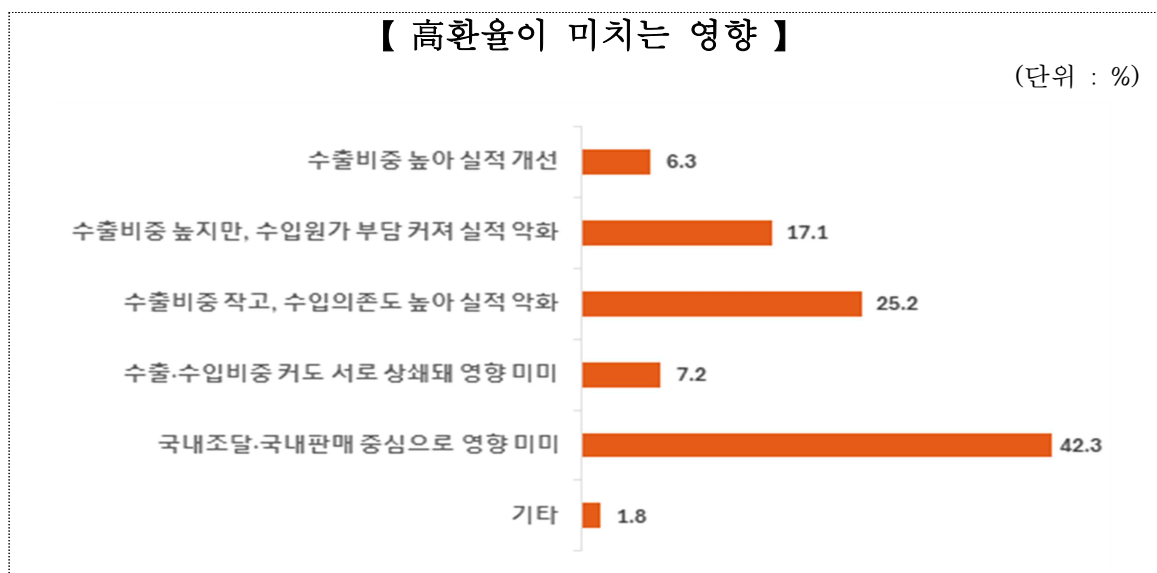
-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며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해 기업 경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은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0.2%로 집계되었으며, ‘소폭 개선’은 27.0%, ‘소폭 둔화’는 21.3%로 나타남. 이처럼 2026년 경제흐름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예측되며, 뚜렷한 경기 회복보다는 당분간 정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역기업들은 인식하고 있음.
- 한편, 환율 인상(원화 약세)은 기업 경영에 있어 원가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고환율로 실적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42.3%에 달한 반면, 실적 개선 응답은 6.3%에 그쳐 환율상승의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입 원자재·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 기업들은 환율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영하듯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로 ‘안정(유지) 경영’이 6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아울러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와 실적 개선을 위해 국내 투자 촉진과 소비 활성화, 금융 여건 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유가·원자재가 및 환율 변동성, 글로벌 경기 둔화를 주요 하방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경기 회복과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Ⅲ

기업이 바라본 2026년 경영·경제전망 조사

1. 高환율이 기업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 고환율이 지역 기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조달·국내 판매 중심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우리 지역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원재료의 국내조달 비중이 높으며, 판매도 내수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환율인상의 영향이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지역 수출업체의 경우 원료의 ‘수출비중이 작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인상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응답이 25.2%로 나타났으며, ‘수출비중이 높지만, 수입원가 부담이 커져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7.1%로 나타남. 이처럼 고환율은 전반적으로 실적개선보다는 원가 부담 확대로 지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高환율이 미치는 영향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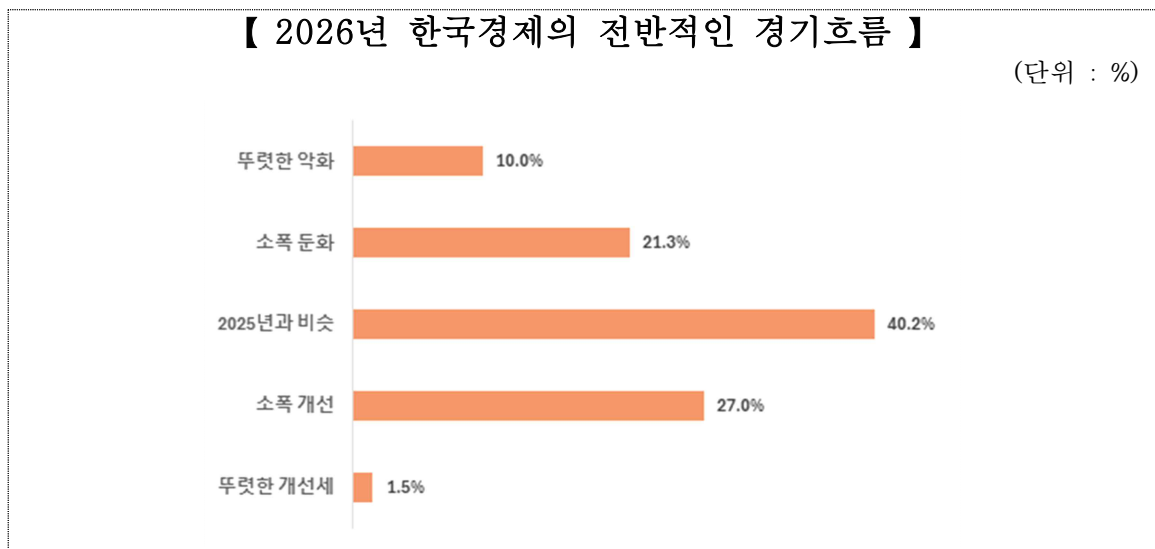
구 분	수출비중 높아 실적 개선	수출비중 높지만, 수입원가부담 커져 실적악화	수출비중 작고, 수입의존도 높아 실적악화
바 이 오 농 식 품	6.7	20.0	20.0
섬 유 의 복	16.7	33.3	33.3
화 학	5.3	10.5	26.3
비 금 속	-	20.0	20.0
금 속 기 계	9.5	14.3	28.6
전 기 전 자	-	-	16.7
자 동 차 부 품	7.1	28.6	28.6
기 타	-	-	25.0

구 분	수출·수입비중 커도 서로 상쇄돼 영향 미미	국내조달·국내판매 중심으로 영향 미미	기 타
바 이 오 농 식 품	3.3	46.7	3.3
섬 유 의 복	-	16.7	-
화 학	-	57.9	-
비 금 속	30.0	30.0	-
금 속 기 계	19.0	23.8	4.8
전 기 전 자	-	83.3	-
자 동 차 부 품	-	35.7	-
기 타	-	75.0	-

- 고환율은 업종 전반에서 수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보다 원가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국내 조달·국내 판매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업종에서는 환율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인식도 일부 나타남.
- 고환율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섬유·의복 16.7%, 금속기계 9.5%, 자동차부품 7.1%에 그친 반면, 수입 원가 부담 증가로 실적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섬유·의복 33.3%, 자동차부품 28.6%, 비금속 20.0%로 더 높게 나타나 환율 상승의 긍정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수입 원자재·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내수·제조업 중심 업종의 취약성이 두드러짐. 수출 비중은 낮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실적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금속기계 28.6%, 화학 26.3%로 나타나 국내 조달 여건이 취약할 수록 고환율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2. 지역 기업이 전망하는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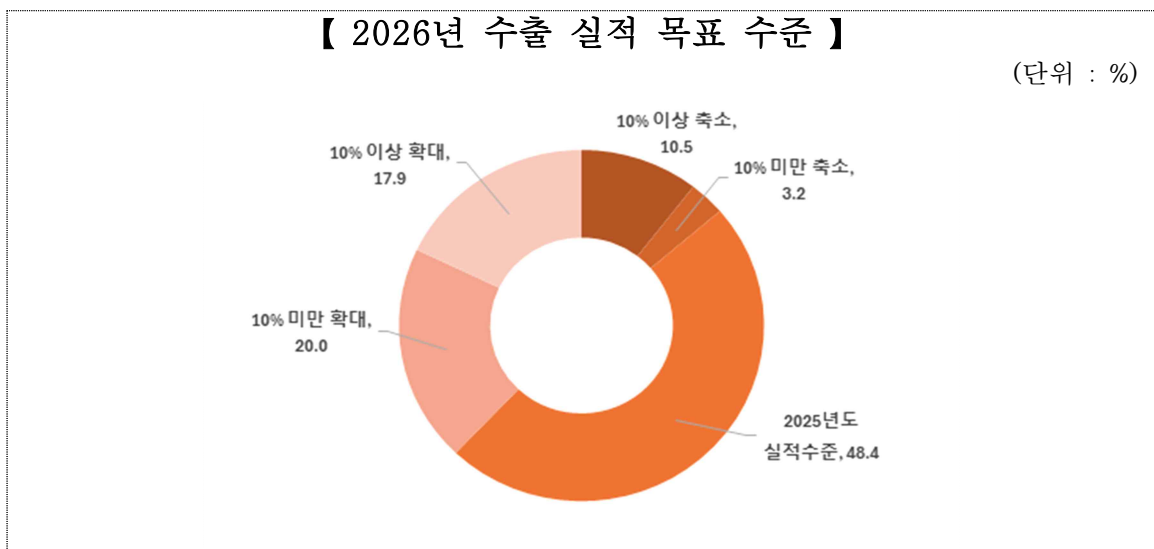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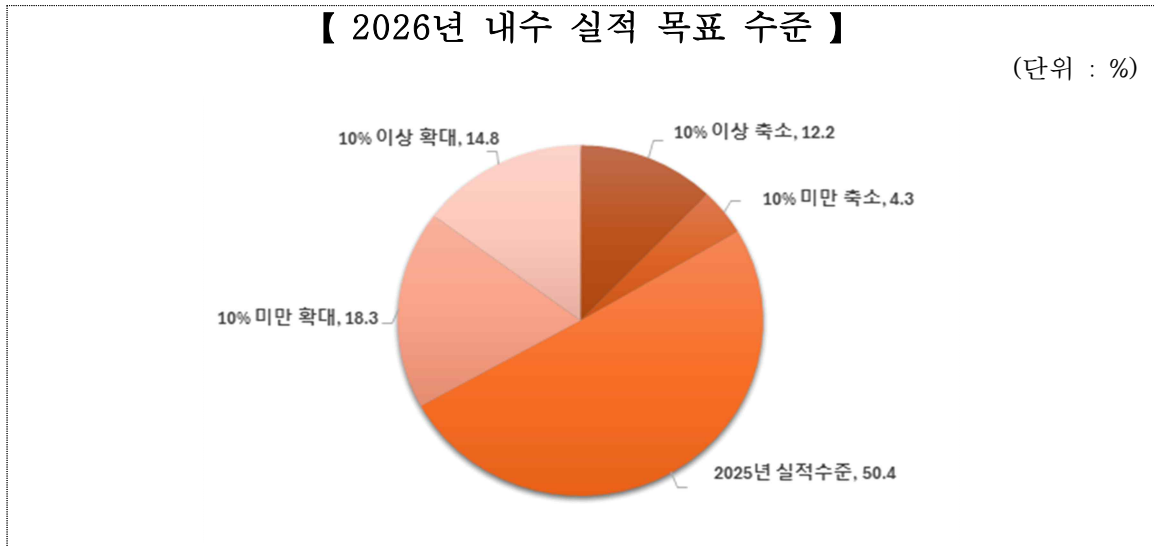
- 2026년 한국경제 전반의 경기 흐름에 대해 지역 기업들은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뚜렷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 수준의 경기 정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함을 보여줌.
- 이러한 인식 속에서 ‘소폭 개선’(27.0%)과 ‘소폭 둔화’(21.3%) 응답이 엇갈리며, 향후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임을 시사함. 다만 ‘뚜렷한 개선’(1.5%)이나 ‘뚜렷한 악화’(10%)를 전망한 기업은 소수에 그쳐, 급격한 경기 변동 가능성은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내수 및 수출 실적 목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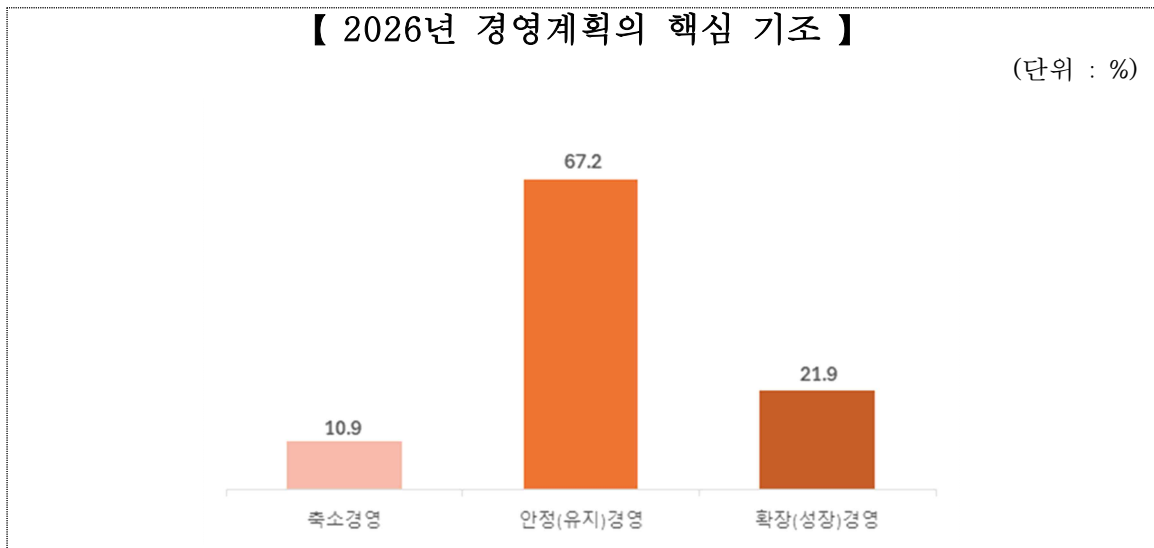
- 지역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2025년 실적 수준 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함.
- 2026년 내수 실적 목표를 보면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한 기업이 50.4%로 가장 많았음. ‘내수 실적 확대’를 목표로 한 기업은 33.1%, ‘실적 축소’를 예상한 기업은 16.5%로 집계되어 소비 회복 지연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다수 기업이 성장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보수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수출의 경우 ‘지난해 실적 수준 유지’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음. ‘수출 실적 축소’를 예상한 기업은 13.7%에 달해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여전히 수출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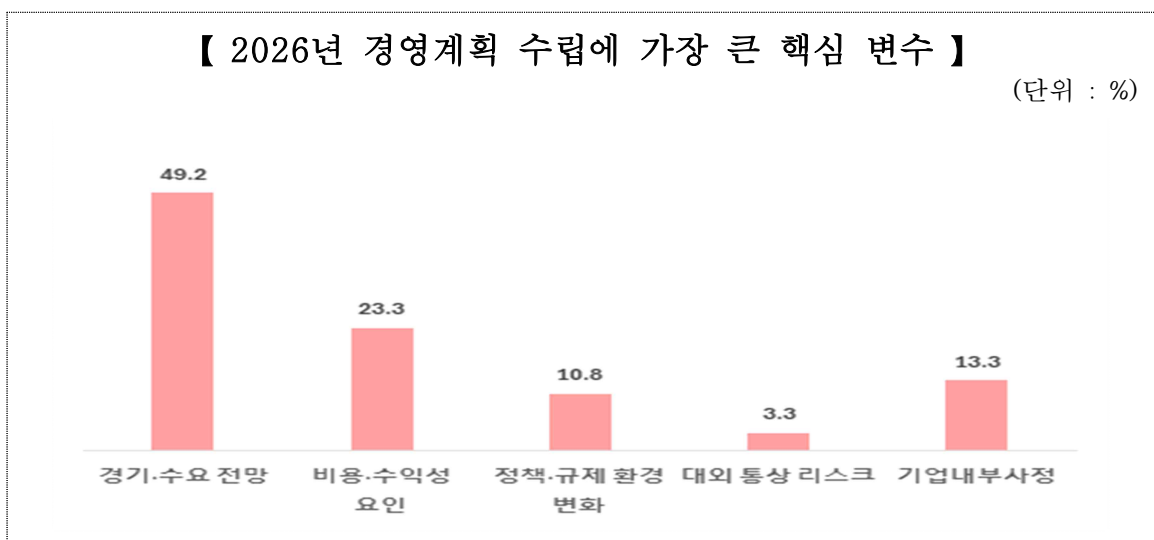
4.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

-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를 조사한 결과, ‘안정(유지) 경영’이 6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 ‘확장(성장) 경영’이 21.9%, ‘축소 경영’이 10.9%로 나타나, 지역의 기업들은 올해 경영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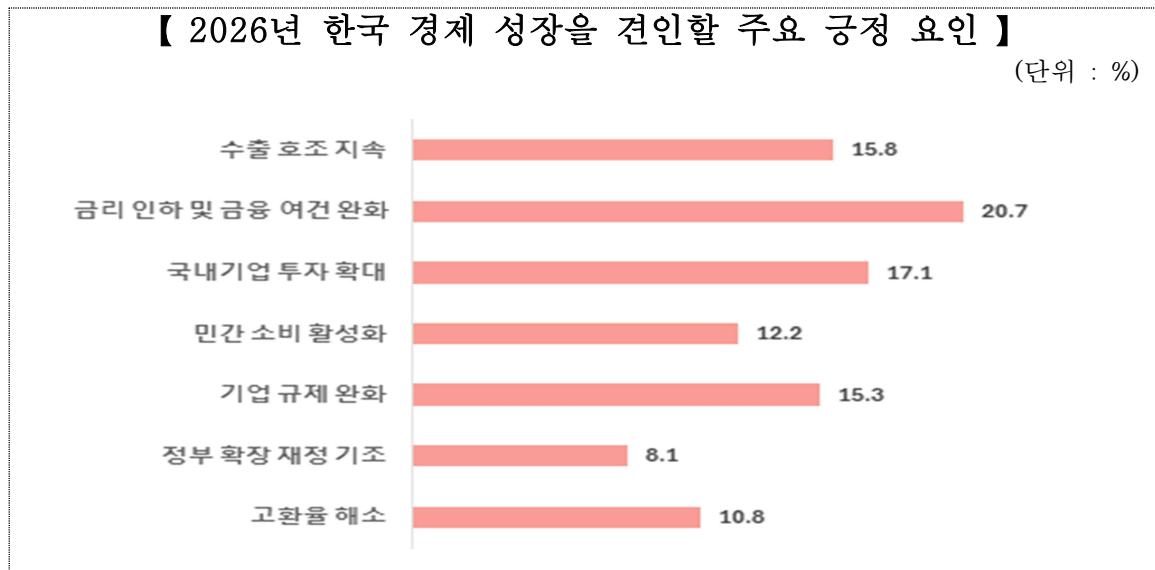
4-1. 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

- 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를 조사한 결과, ‘경기·수요 전망’이 4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 ‘비용·수익성 요인’이 23.3%, ‘기업 내부 사정’이 13.3%, ‘정책·규제 환경 변화’가 10.8%, ‘대외 통상 리스크’가 3.3% 순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2026년 경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기 흐름과 수요 회복 가능성, 비용 부담과 수익성 관리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불확실한 경기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외형 확대보다는 경영 부담 관리와 내부 체력 보강에 초점을 둔 보수적 경영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5.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

-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을 조사한 결과, ‘금리 인하 및 금융 여건 완화’가 20.7%로 가장 높게 조사됨. 뒤를 이어 ‘국내 기업 투자 확대’(17.1%), ‘수출 호조 지속’(15.8%), ‘기업 규제 완화’(15.3%), ‘민간 소비 활성화’(12.2%), ‘고환율 해소’(10.8%), ‘정부 확장 재정 기조’(8.1%) 순으로 나타남.
- 대내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금융 비용 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금융 여건 완화를 경제 회복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아울러 투자·수출 여건 개선과 규제 완화, 소비 활성화, 환율 안정이 병행돼야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역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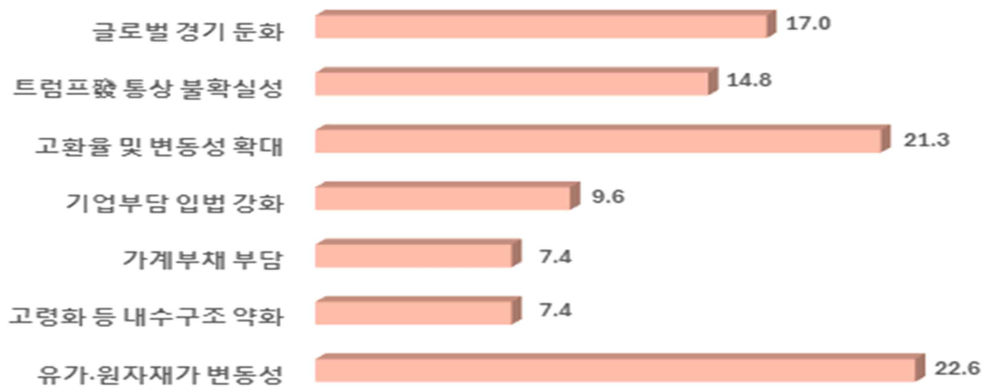


6.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

- 2026년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가·원자재가 변동성’이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 확대’ 21.3%, ‘글로벌 경기 둔화’ 17.0%,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 14.8%, ‘기업부담 입법 강화’ 9.6%, ‘가계부채 부담’과 ‘고령화 등 내수 구조 약화’가 각각 7.4% 순으로 나타남.
- 유가·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된 것은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원가 부담이 기업 수익성과 경영 계획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아울러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역시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 】

(단위 : %)



7. 2026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 2026년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국내 투자 촉진 정책’이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 ‘소비 활성화 정책’ 21.7%, ‘환율 안정화 정책’ 17.6%,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 17.2%, ‘위기 산업 지원 정책’ 12.7%, ‘AI·첨단산업 육성 지원 정책’ 5.4%,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0.9% 순으로 나타남.
- ‘국내 투자 촉진’(24.4%)과 ‘소비 활성화’(21.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요 회복과 투자 여건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경기 반등과 기업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또한 ‘환율 안정화’(17.6%)와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17.2%)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대외 불확실성과 비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기업 경영 전반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2026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

(단위 : %)

